

III. 시장정보

1. 식품 소비 트렌드

□ 1인당 식품 및 음료 소비량

식품 소비량				
	2008	2009	2010	2011
1인당 식품 소비액 (US\$)	2,662.2	2,612.7	2,638.6	2,668.2
식품소비액 (US\$, 10억)	811.95	803.88	818.99	835.37
식품소비 변화량 (%)	1.89	-0.99	1.88	2.00
1인당 식품소비액 변화량 (%)	0.98	-1.86	0.99	1.12

* 출처 : Business Monitor Information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20일

□ 농식품 소비량 파악 통한 소비성향

- 미국인들은 많은 자료에서 확인된 바이지만, 너무 많은 스낵, 인스턴트 푸드 등 30년 전에 비해 너무 많은 음식을 먹고 있음. 지난 30여년간 미국의 음식 소비 패턴에 있어,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은 식품 가공 공정에서의 변화, 미국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증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등임
- 새로운 상품들, 특히 수입이 늘어나면서 먹기에 편리한 식품들이 선호되고, 외식이 늘어나면서, 광고의 영향으로 음식의 기준도 달라졌음. 또한 핵가족화, 여성의 취업률 증가, 이혼부부 가족,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식품소비 트렌드

드도 영향을 받게 되었음

- 새로운 식사 가이드 라인은 미국인들에게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한편 정상적인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음식을 선택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음. 즉 웰빙이나 유기농 식품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음
- 소비자들은 사실상 음식의 가격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가격이 오른다면 소비자들은 다른 대체품을 찾으려 할 것임. 미국인들은 개인 소비와 관련하여 아주 작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미국인들이 소비하는 비용 중에서 음식에 대한 비중은 9.5%(2009년 기준)로 캐나다의 10%, 영국의 10%, 그리고 50%가 넘는 인도와 필리핀에 비하면 음식에 적은 비용을 들이고 있음

□ 농식품 관련 최근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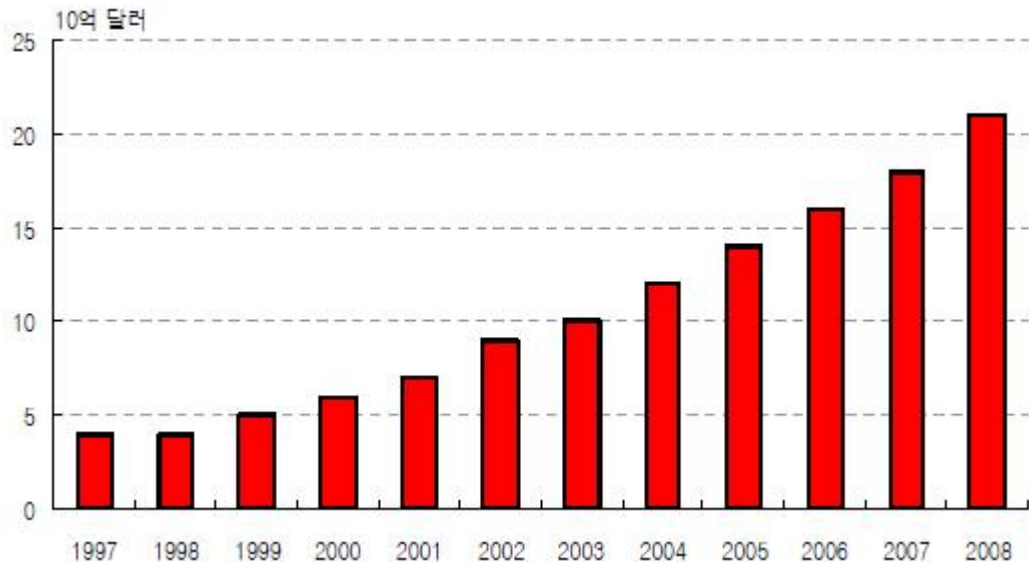
- 미국 내 식품 안전성 강화에 대한 여론 확산
 -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음
 - 2007년 FDA가 중국에서 양식된 어패류에서 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 검출되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음
 - 2008년에는 중국산 분유에 멜라닌이 혼입되어 크게 이슈된 바 있음

- 이와 같이 수입 식품의 안전성이 염려되는 사고가 계속되자 수입 식품에 대해 사전에 수입 국가의 시설을 조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하였음
- 이러한 여론 고조를 배경으로 FDA 기능 강화와 식품공급 시스템 감시체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포괄적인 식품안전 강화법안(H.R.2749 Food Safety Enhancement Act of 2009)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
- 본 법안은 1938년에 제정된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법을 약 70년만에 크게 수정한 것임
- 새로운 법안의 내용을 보면, 검사횟수 증가, 등록시설에서 등록금 징수, 식품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강화, 리콜권한 부여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해외시설에 대해서도 연간 500 달러의 등록금을 징수하고 FDA가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등 미국 수출국가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유기농 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확대

- Nutrition Business Journal에 따르면, 미국의 유기농 식품 판매액은 1997년 36억 달러에서 2008년 211억 달러로 5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조사

< 미국의 유기농 식품 판매액 >



출처 : Nutrition Business Journal

- 특히, 미국 유기농 식품 수요가 국내 공급을 초과하여 유기농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USDA가 공인한 인증기관들은 2007년에 세계 각국의 2만 7,000명의 생산자 및 취급업자들을 미국 유기농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증
- 그 중 대략 1만 6,000명이 미국에 있고 나머지 1만 1,000명은 100개 이상의 외국에 있음
- NOP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농가와 취급업자들은 캐나다, 이탈리아, 터키, 중국, 멕시코에 그 수가 가장 많음